고규홍의 '나무 생각'

태풍 앞에 선 도시의 나무

처음 뿌리내린 자리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나무에게 태풍은 큰 위협이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를 남긴 태풍 솔릭도 나무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예보대로 한반도를 관통했다면, 나무들이 겪어야 했을 피해는 훨씬 컸을 게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태풍 대비책을 마련하지만, 나무는 고스란히 태풍을 맞이해야 한다.

벼락도 나무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벼락에 비해 태풍은 피해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나무 곁에 피뢰침을 설치하면 벼락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지만, 바람의 길목에 서 있는 나무를 태풍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다. 나무를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도 없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피신시킬 수도 없다. 사람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바람막이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나무를 위한 바람막이는 없다. 크든 작든 불어오는 바람을 나무 스스로 이겨 내야 한다.

하릴없이 나무는 제가끔 나름대로 태풍 대비책을 갖춘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땅의 힘에 기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나무·느티나무·은행나무 같은 나무들이 대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버티는 방법으로 태풍과 맞서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메타세쿼이아를 비롯한 낙우송과(落羽松科)의 나무들이 바람에 대비하는 방식은 남다르다. 원뿔형으로 높이 자라는 낙우송과의 나무들은 나뭇가지를 펼치는 폭에 비해 키가 매우 크다. 널리 알려진 전남 담양의 메타세쿼이아는 대략 50년 정도 됐지만, 높이는 20미터를 넘어섰다. 그러나 가지 펼침 폭은 10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 바람의 위협에 온전히 노출된 메타세쿼이아는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쓰러질 위험이 크다.

깊은 뿌리로 땅의 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 견디기 어려운 큰바람을 여러 차례 경험한 메타세쿼이아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뿌리를 넓게 펼쳐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는 방식이다. 긴 세월을 거치며 체득한 생존 전략이다. 옆으로 뻗은 뿌리는 곁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와 쉽게 만나서 다른 뿌리들과 얽히고설켜 단단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장점도 있다. 넓게 뻗은 뿌리로 지탱할 뿐 아니라, 곁에서 엉킨 다른 나무들과 힘을 합해 큰바람을 이겨 낸다. 바람에 맞서는 게 아니라, 높이 솟아오른 줄기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제 몸으로 바람을 받아들여 흔들리는 게 유리하다는 걸 나무가 아는 것이다.

돌아보면 뿌리를 깊이 내린 소나무나 느티나무에 비해 메타세쿼이아처럼 뿌리를 넓게 뻗은 나무가 태풍을 견디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풍이 덮칠 때마다 쓰러지는 나무들은 대개 뿌리를 깊이 내렸던 소나무·느티나무·은행나무들이다. 그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바람에 더 힘겹게 저항해야 했던 메타세쿼이아가 쓰러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사례는 훨씬 적다. 나무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온갖 전략을 짜낸다.

그러나 도시의 나무는 그조차 쉽지 않아, 태풍 솔릭으로 크고 작은 가로수들이 숱하게 쓰러졌다. 줄기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혔다. 도시에서는 나무가 스스로 태풍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하에 넓게 뻗은 갖가지 전기 설비와 상하수도 시설을 피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뻗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옹색하게 뿌리 부분만 남겨 놓고, 콘크리트와 보도블록으로 채워 넣은 공간에서 나무는 뿌리를 옆으로도 넓게 뻗지 못한다. 땅의 힘에 기대어 큰바람을 이겨 낸다는 건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태풍을 이겨 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러지고 쓰러져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게 도시의 나무들이다.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키우는 나무라면 그가 더 오래 사람과 더불어 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무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지금처럼 옹색한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무리 강인한 태풍 대비책을 갖춘 나무라 해도 더 깊고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나무의 공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태풍이 닥칠 때마다 홀로 안간힘을 다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가 만들어 내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도시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나무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 說

지역 현안 누락 예산 추가 지원에 힘 모아라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요청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증액분 169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예산 300억 원 등 주요 현안의 예산도 줄줄이 누락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169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1천697억 원에서 538억 원이 증액된 2천235억 원으로 사업비를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당시 광주시는 기재부·문체부와 '사업 규모나 내용 변경 등으로 시설비·운영비가 증가할 경우 국비 지원은 증액하지 않고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증액 요청한 예산은 경기장과 시설 변경 등에 따른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이다. 때문에 증액분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행사다. 당연히 정부는 주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역시 국책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광주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들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느는데 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엊그제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집값이 급등세를 보여 과열 우려가 있는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 단속을 맡고 있는 광주 지역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3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정받았고 이어 5개 자치구에서도 21명이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에게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약 통장 불법 거래나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권한이 주어진다.

하지만 5개월이 넘도록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다. 전문성과 단속 의지도 문제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의 경우 특사경 교육을 받은 관련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과 직원이 지난 '5월 인사'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됐고, 8월에는 또다시 담당 팀장과 직원이 바뀌는 등 3개월간 두 차례 인사가 이뤄졌다. 5개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는 사이 광주 남구와 광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3.3㎡당 매매 가격이 1900만~22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사이 1억 원 이상 급등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불법 시장 교란 행위나 투기 세력의 개입 등이 의심되는 이상 과열 현상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도한 프리미엄 책정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 물건 게시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인사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강제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한다면 검·경과 공동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 고

민생 경제 살리기 현장에 답이 있다

문 인
광주시 북구청장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자도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모두 사정이 여의치 않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87.9%(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질적인 '구직난 속의 구인난'으로 구직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광주 지역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고용률은 59.3%로 0.5%p 하락하고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생이 29%를 차지해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자영업자들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최저 임금 및 대출 금리 인상으로 삼중고에 빠져 있다.

이처럼 수출·생산 실적과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하면서 "광주 지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 부진, 기업 심리 위축, 고용 한파로 이어지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풀뿌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북구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는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지역 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첨단 1·2단지 및 본촌산단 등이 위치한 신용동에 지난달 24일 민선 7기 저의 1호 공약으로 경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제 종합지원센터는 노후화된 산단의 업종 재배치와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구조 고도화를 유도한다. 또 기업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등 현장 중심의 기업 활동 지원을 전담한다.

특히 북구에 있는 광주과기원, 테크노파크, 전남대 등 많은 대학교·연구소들과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소비 심리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관내 2만 6천여 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공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과 이자 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다. 업체별 경영 실태를 파악해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영 교육과 방문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채무 증가, 금융 정보 부족, 낮은 소득·신용등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 소외 계층에게 재무 상담과 채무 조정, 금융 지원 등 맞춤형 금융·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달 5일에는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청년, 내일(My Job)을 향해!'를 주제로 고용 기업과 구직자간 만남의 장인 '2018 북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전남대 컨벤션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와 취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 기업에는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해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선 산업 현장과 골목 상권을 수시로 찾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노·사·민·정이 모두 힘을 모아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북국는 이러한 일을 기꺼이 할 것이다.

無等鼓

소득 주도 성장

며칠 전 잘 아는 선배의 식당을 찾았다. 듬성듬성 비어 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고 계산하는데, 대뜸 선배가 장부를 보여 주며 하소연했다. 매출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망하게 생겼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여야겠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즉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규제 완화, 금융 인센티브, 불법 승계 등으로 대기업을 지원해 그 '낙수'로 버텨 온 과거 방식을 과감히 청산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온데간데없다.

정부의 경제 정책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과세와 재정 지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오롯이 고용주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도 이미 고임금 체계를 구축한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전문직 등이 아닌 소기업, 영세 상공인 등과 직결된다.

볼멘소리가 계속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소기업, 영세 상공인 등이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든 경제 정책은 '상후하박'에 중점을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임직원의 수십억 원 또는 억대 연봉은 중소 하청업체의 '고혈'에서 뽑아낸 것이며, 금융 기관과 그 감독 기관의 '황홀한' 연봉·복지 시스템은 '이자 놀음'이나 '특혜'와 연관이 있다. 공공 기관 역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임직원 임금 상승, 법인 카드 긁기에만 관심을 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도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요구,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 등 소득 하위 계층을 옥죄는 여러 적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전제는 분배 정의다. 먼저 노동의 가치, 질, 시간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보유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부유층 과세, 소득 상위 계층의 견고한 고임금 체계의 개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등이 시급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의료칼럼

8월의 어느 멋진 날에

최 희 진
전남대병원 중앙수술실 간호사

수술실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난 지금은, 연차별로 더해지는 업무의 양과 수술의 깊이도 그와 함께 늘었다. 심리적인 부담감과 더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스스로에게 보람이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자주 가져 보았다.

신규 간호사 시절에는 모든 일에 열정을 쏟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웃는 일보다 화내는 일이, 인내심으로 버티는 것도 버거운 날들의 연속이기에 더 없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결국 일이 나고 말았다. 평소 기상 시각 두 시간 전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깰 수 밖에 없었다.

"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야."

출근해서도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말을 걸어도 인상만 써지고 여느 때처럼 웃으면서 대화하기가 많이 힘들었다.

수간호사 선생님께도 보고가 된 상황이었지만, 그냥 무던히 아프다가 말겠지 싶어서 나는 퇴근시간까지 참았다. 퇴근하고 탈의실로 갈 때쯤에는 뭔가 허탈함과 함께 '그래도 근무는 무사히 마쳤구나'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아침·점심 두 끼를 먹지 못해서 어지러운데다가 저녁까지도 먹기 힘들 정도로 식은땀이 나면서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 앞 내과에 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은 배앓이 일 줄 알았다.

"맹장이 8㎝나 부어 있어요. 소견서를 써 줄 테니 당장 수술이 가능한 대학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세요.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지금 바로 대학 병원으로 가세요."

이런 맙소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한 번도 수술을 받지 않은 나로선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일인가 싶고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뢰서와 CD를 받고 나니, 배가 계속 아파 더 이상 지체하면 큰 일 나겠다 싶어 다시 내가 근무하는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왔다.

내 직장엔 아파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로 다시 환자로 오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근무하고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외에는 가 본 적이 없어 응급실과 직원들이 낯설었다.

채혈하고 복부 CT도 찍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는 얼마나 아픈지! CT 찍을 때 주입하는 조영제 알레르기로 두드러기가 나서 주사를 또 맞았다. 책으로만 익힌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환자들도 참 많이 아팠겠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겠다 싶었다.

5년 동안 근무한 수술실이지만 수술대에 누워있으니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지는데 환자들은 얼마나 더 낯설게 느껴졌을까. 막상 내가 환자가 되어서 누워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무서웠다.

마취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타임아웃으로 정확한 환자, 영상 자료, 수술 부위 위치 확인, 감염 및 알레르기 유무 등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재확인했다. 동료들은 수술실 침대에 누워 올려다보는 나에게 안심하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나의 동료들이 크게만 느껴지고 자꾸 손에 땀이 났다. 그렇게 마취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

수술은 잘되었지만 병실로 옮겨져 마취에서 깨어나니 너무 아팠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고통이었다. 복강경 수술로 절개가 아주 작았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더 큰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얼마나 고통일까 싶었다. 어른이 되면 아이일 때보다 덜 아플 줄 알았다. 경험해보니 환자는 아이건 어른이건 아프면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일에 치중해 환자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처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을 때의 나의 마음가짐은 환자를 먼저 배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이었는데, 내가 참 많이 알지 못했고 잊고 일 해왔구나 싶었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퇴원을 하게 되는 날은 나 말고도 병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서 퇴원하기를 기원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본래의 건강함을 되찾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랐다. 잊을 수 없는 8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